

# 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 현직 경찰 추락사건, 함께 있던 동료들 ‘자살방조죄’ 성립할까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하고, 정리합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전날 밤부터 15명의 일행과 함께였습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결과, 집단 마약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15명 가운데에는 비뇨기과 의사, 대기업 직원, 유명 헬스 트레이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 있던 현직 경찰관이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 집단으로 마약을 한 장소에 현직 경찰관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만약, 숨진 경찰관이 마약 단속을 위해 잠입수사 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면 반드시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집단으로 마약을 하는 장소에 경찰관이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 그곳에 갔다면, 통탄할 일입니다.

### ◇ 경찰관의 사망 원인은 밝혀졌나요?

해당 경찰관은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경찰관의 직접 사인은 여러 둔력에 의한 손상으로 나왔습니다.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타살인지 확인은 더 필요합니다. 스스로 뛰어내린 것인지, 누군가 떨어지게 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밀 감정을 통해 사망한 경찰관이 마약을 투약했는지, 했다면 언제부터, 어떠한 종류의 마약을 얼마만큼 투약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 ◇ 관련자들은 모두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는데요.

사망한 경찰관 외에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 14층에 모였던 사람은 총 15명입니다. 사고 당일 경찰이 출동했을 때 해당 아파트에는 7명이 있었는데, 그중 5명은 간이마약검사에서 양성 나왔습니다. 당시 마약검사를 거부한 2명과 이후 해당 아파트 CCTV를 통해 출입이 확인된 8명에 대해 간이마약검사를 진행했지만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3~4일이 지난 시점에서 한 검사라는 점에서 나머지 10인에 대해 정밀마약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정밀마약검사에서 코카인이 나온다면 국내에 남미 마약 카르텔 조직이 존재하거나, 적어도 이 카르텔과 연결된 조직이 있다는 정

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마약 시장의 판이 뒤집힐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앞서 배우 유아인이 코카인 등 마약류 5종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으면서 국내에 코카인 유통이 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코카인은 중추신경 흥분제에 속하는 마약류로 중독성이 강해 초범이더라도 무겁게 처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향후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경찰관의 사인이 타살로 밝혀진다면 그야말로 판이 뒤집힙니다. 특히 경찰이란 신분이 드러나 일행들에게 살인을 당했다면 정말 심각한 사건이 됩니다. 사인이 추락사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있던 사람들에게 대해 '자살방조죄' 성립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해당 경찰관이 뛰어내리는 걸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극적으로 경찰관이 뛰어내리는 걸 말리지 않았다면 동호회 참석자들이 경찰관의 자살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살펴 자살방조죄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마약 관련 수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망한 경찰관이 해당 아파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면 어떤 종류의 마약을, 얼마만큼 투약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현장에서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사람도 해당 장소에 있었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의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넓게는 이들 동호회에 마약을 공급한 자를 찾아야 합니다. 코카인 투약이 확인된 경우, 반드시 국내 코카인 공급조직을 일망타진해야 합니다.

#### ◇ 마약 사범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무엇이 필요할까요?

누가 마약 수사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약이 우리 일상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정원과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마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경선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검찰과 경찰은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관용 없이 엄벌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련 부처는 투약자에 대한 재활에 힘을 다해 재범을 막아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국제조직범죄입니다. 공식적인 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

지막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환수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번 집단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된 동호회 구성원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으로 활동하는 직업을 가진 이들입니다. 마약이 우리 일상생활에 버젓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처/조선일보)